

# 남녀 대학생에서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 주의초점의 매개효과와 주의전환의 조절효과<sup>†</sup>

이 영 아  
국립춘천병원 정신건강과

이 인 혜<sup>‡</sup>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주의초점의 매개효과와 주의전환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를 위해 대학생 489명(남 261명, 여 228명)에게 거부민감성 척도(RSQ), 주의력 조절 척도(ACQ), 사회적 상호불안 척도(SIAS), 사회공포증 척도(SPS)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인 수행불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거부민감성과 수행불안이 더 높았다. 또한 남녀 모두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불안과 수행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주의조절척도의 하위요인인 주의초점과 주의전환은 거부민감성,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및 수행불안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주의초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남녀 대학생 모두에서 주의초점이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수행불안에 유의한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주의전환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의전환은 남녀 대학생 모두에서 유의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이를 매개 혹은 조절하는 주의 변인들을 검증해 봄으로써,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주의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불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거부민감성,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수행불안, 주의초점, 주의전환

<sup>†</sup> 본 논문은 이인혜의 지도를 받은 이영아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본 논문은 2014년 임상심리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논문으로 발표되었음.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인혜,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Tel: 033-250-6850, E-mail: inheyi@kangwon.ac.kr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거부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중요한 타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받는 거부를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대수롭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난히 거부에 민감하고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이 거부를 지각하게 되면 분노 · 적개심 · 지지의 철수 · 질투심 등의 정서적 및 행동적 과잉반응을 하며, 이후 대인불안이나 우울을 경험한다(류혜라, 2014; 이정석, 2013; 이회경, 김경희, 이홍권, 2014; Levy, Ayduk, & Downey, 2001). 거부가 정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대인관계 및 개인의 정신병리(회피성 성격장애, 사회공포증, 신체 이형장애, 경계선 성격장애)에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왔으며, 최근 심리학계에서는 이에 기저 하는 변인인 ‘거부민감성’이라는 변인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민지영, 2012; Lavell, Zimmer-Gembeck, Farrell, & Webb, 2014; Kelly, Didie, & Phillips, 2014; Peters, Eisenlohr-Maul, & Smart, 2016).

거부민감성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거부와 관련한 정보를 민감하게 지각하고, 거부 당하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인지-정서적 과정이다(Feldman & Downey, 1994).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거부를 당한 아이는 중요한 사람에게 거부당할 것이라는 인지적 도식을 확립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아이는 거부에 대한 예기불안을 가지며, 일반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거부당서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게 된다. 하지만 거부민감성이 높다고 해서 모두 사회불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 거부민감성은 거부에 대한 취약성일 뿐 이 자체로 병리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

다.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 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거부민감성은 중요한 타인에게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이며, 사회불안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이다(Downey, Mougios, Aduk, London & Shoda, 2004). 즉, 중요한 타인에게 거부당할 것이라는 기대가 거부민감성이라면 이런 거부에 대한 기대가 일반화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된 것이 사회불안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부에 대한 취약성 즉, 거부민감성이 병리적 불안인 사회불안장애로 발전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그동안 거부민감성과 정신병리와의 관련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특히, 경계선 성격장애와의 관련성에 대해 주로 연구되어 왔다(민지영, 2012; Lazarus, Southward, & Cheavens, 2016; Rosenbach & Rosenbach, 2014).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거부에 대한 예기불안/분노를 느끼게 되는데 이때 촉발자극으로 인해 거부가 지각되면 예기 분노가 사회적 위협에 대한 ‘투쟁(fight)’의 연료가 되어 상처받고 분노하여 타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등의 격렬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London, Downey, Bonica, & Paltin, 2007). 이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파괴적 대인관계 또는 유기공포에 대한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에 반해 사회불안과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거부에 대한 예기 불안은 거부가 지각되었을 때 ‘회피(flight)’ 반응을 일으켜 사회적 철수의 연료가 될 것으로 추론된다(London et al., 2007). 선행연구들은 거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서적 상태를 구별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Downey & Felman, 1996; Levy et al., 2001). 특히, 거부에 따른 필사적인 회피행동은 자신이 거부당할 것이라는 왜곡된 기대와 신념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더 병리적인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Ólafsson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되었던 거부민감성과 경계선 성격장애의 관계가 아닌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과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order)/사회공포증(social phobia)<sup>1)</sup>은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나 불안이 지나쳐서 개인의 사회적·직업적 손상을 유발하거나 이로 인해 심리적 고통이 극심한 경우를 말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Rapee와 Heimberg(1997)의 인지-행동 모형에 의하면, 사회공포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위협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 즉, 인지적 요소가 사회공포증의 발병 및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두 변인의 관계에서 인지적 요소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여러 인지적 요소 중에서도 '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 모두 불안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안한 사람들은 위협적인 정보에 극도로 민감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협적인 정보로 주의가 편향된다(Beck, Emery, & Greenberg, 1985; Berenson et al., 2009; Rapee & Heimberg, 1997).

그동안 많은 연구들은 불안한 사람들이 위협 자극에 편향된 주의를 보이며, 이러한 편향된 주의가 위협을 확대하고 불안을 증폭시킨다는 측면을

강조해왔다(윤혜영, 2011; 이승재, 2010; 이진희, 2012; Mathews, 1990; Wells & Matthews, 1994; Williams, Mathews, & MacLeod, 1996). 이는 주의의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인 불수의적 과정(involuntary process)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수의적 과정(voluntary process)은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Derryberry와 Reed(2002)의 연구를 살펴보면,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은 주의의 불수의적 과정을 거쳐 위협 자극에 주의편향을 보이지만, 수의적 과정 즉, 주의조절력이 높을 경우에는 위협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불안 취약성을 가진 개인이 불안 장애로 발전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개인차에 주의조절력이 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신경학적 관점에서 주의의 지향성은 불수의적이고 생리적이지만, 주의의 수의적 통제는 나중에 발달하고 학습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Bergen, 1994; Robthbart, Derryberry, & Posner, 1994; 고지희, 1998에서 재인용). 주의조절력은 수의적 통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능력에 결함이 있을 경우, 후천적으로 주의조절기법을 개발하여 습득한다면 병리적 불안으로 발전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Derryberry와 Reed(2002)는 수의적 통제를 측정하는 주의조절척도를 개발하였고, 이를 주의초점(attention focusing)과 주의전환(attention shift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주의초점이란 자발적으로 선택한 자극에 주의를 초점화하며, 목표자극

1) DSM-IV에서는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나 불안이 극심할 경우, 사회공포증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DSM-5에서는 이러한 사회공포증이 일상생활의 작은 영역까지 퍼져있으며 다른 공포증보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사회불안장애를 사회공포증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고,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두 용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APA, 2013).

으로부터 주의분산을 막고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말한다. 한편, 주의 전환은 혐오적이거나 불쾌한 정서를 유발시키는 자극으로부터 벗어나 주의를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하지만, 주의초점과 주의전환을 지지하는 경험적인 연구의 부족으로 그동안 단일 주의조절 척도를 이용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Derryberry와 Reed(2002)가 가설적으로 주장한 2개의 하위요인(주의초점, 주의전환)을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적절히 변별됨을 확인하였다(윤선아, 김현택, 최준식, 2007; Ólafsson et al., 2011). Ólafsson 등(2011)의 연구에서는 주의초점능력의 결함이 불안을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주의전환능력의 결함이 우울을 예측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정서적인 측면에서 주의전환 능력이 낮은 사람은 부정적 자극에서 안전자극으로 쉽게 이동하지 못하고, 부정적 자극에 더 오래 사로잡히게 되며, 부정적 정서의 지속기간과 강도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김계원, 2010; 윤선아 외, 2007; Ólafsson et al., 2011). 또한, 고지희(1998)는 불안한 개인이라도 주의전환능력이 높으면 병리적인 불안으로까지 발전되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즉, 불안에서 주의초점과 주의전환은 다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주의초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불안수준이 높은 사람은 위협적인 자극에 주의를 편향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목표 자극과 무관한 위협적인 자극에 주의를 편향되기 때문에 목표 자극에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불안을 높일 수 있다(이현정, 2007). 사회불안자를 대상으로 한 스트룹 과제에서 위협자극에 대한 주의 편향을 확

인하였다(Williams et al., 1996). 이 연구에서,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은 위협적인 단어의 내용에 주의를 편향되기 때문에 색상에 초점을 맞춰 이를 명명하는데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즉, 불안수준이 높은 사람은 위협자극에 주의를 편향되는 경향이 높았다.

주의전환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은 위협적인 자극으로부터 주의를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Derryberry와 Reed(1994, 2002) 그리고 Derryberry와 Tucker(1992)의 연구에서도 특성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 위협자극으로부터 주의를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이들 중 주의전환이 높은 사람은 위협자극으로부터 주의를 이동함으로써 불안을 낮출 수 있었다. 이는 주의전환이 높은 사람은 불안을 높이는 자극에 직면했을 때, 전략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거부민감성(예기불안)이 높으면, 주의초점능력을 낮추고, 낮은 주의초점능력이 사회불안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주의초점의 매개 또는 부분매개효과를 가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거부민감성(예기불안)이 높더라도 주의전환의 수준에 따라 사회불안을 높일 수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주의조절력(주의초점, 주의전환)이 이들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것이다. 아울러, 각 변인에서 성차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사회불안을 상황특성에 따라 하위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성차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불안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왔기 때문이다(김선은, 2011; 왕미란, 1995). 이는 일반적으로 불안수준이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 그에 반해, 거부민감성에 있어 성차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비일관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즉 여자가 남자에 비해 거부민감성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연구결과(김나영, 2009; 심경원, 2007; 이복동, 2000)와 거부민감성에 성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박명주, 2012; McLachlan, Zimmer-Gembeck, & McGregor, 2010)가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불안과 거부민감성의 관계를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을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사회불안의 진단과 평가에서 하위 유형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회불안은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상황 특성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불안'과 '수행불안'으로 구분되는데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은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유형이며, 수행불안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수행을 관찰하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유형이다(Leary, 1983; Liebowitz, 1987). DSM-IV와 달리, DSM-5에서는 사회불안 진단을 내릴 때, 수행불안일 경우 '수행형 단독(performance only)'라는 것을 따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만큼 사회불안의 하위유형 구분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거부민감성이라는 같은 취약성을 가진 개인이라도 사회불안이 유발되는 상황에 따라 심리적 기제와 표출 양상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대한 치료적 개입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불안을 사회

적 상호작용불안과 수행불안으로 구분하여 확인해 보고자 한다.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주의초점과 주의전환은 차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거부민감성이라는 취약성을 가진 개인은 주의초점능력의 결함을 거쳐 사회불안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아울러, 거부민감성이라는 취약성을 가진 개인이라도 주의전환의 수준에 따라 사회불안을 높일 수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즉, 거부민감성에서 주의초점의 결함은 사회불안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주의전환 능력은 대처전략으로써 사회불안을 줄일 수 있는 치료적 함의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방 법

### 참여자

강원도 소재의 K대학교 학생 52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중 결측 문항이 있는 21명의 질문지와 극단치 15명을 제외한 총 489명(남 261명, 여 228명)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전체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20.17세( $SD=1.99$ )였으며, 연령의 범위는 18~29세이었다.

### 측정도구

**거부민감성 척도.** 본 연구에는 사용한 거부민감성 척도(The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RSQ)는 Downey와 Feldman(1996)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이복동(2000)이 번안한, 한국판 RSQ를 사

용하였다. 검사에서는 성인 초기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18개 상황을 제시하는데 각각의 상황마다 자신의 요구가 거부될까봐 불안한지와 상대방이 그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 있으며, 응답자는 질문에 대해 각각 6점 Likert 척도 상에서 평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5이었다.

**주의력 조절척도.** Derryberry와 Reed(2002)가 개발한 주의력 조절척도(Attentional Control Questionnaire: ACQ)를 윤선아 등(2007)이 번안,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ACQ는 주의초점 10문항, 주의전환 10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 척도로,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전체가 .80이었고, 주의초점은 .73, 주의전환은 .70이었다.

**사회불안.**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척도와 사회공포증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척도.**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는 Mattick와 Clarke(1998)가 대인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겪는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이며, 각 문항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의 정도를 측정한다. 본 연구는 김향숙(2001)이 번역하고 타당화 과정을 거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 상에서 평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 측정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1이었다.

**사회공포증척도.** 사회 공포증 척도(Social Phobia Scale: SPS)는 Mattick와 Clarke(1998)가 타인의 시선이 의식되는 상황에서 어떤 것을 수행해야 할 때, 파생되는 수행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이다. 본 연구는 김향숙(2001)이 번역하고 타당화 과정을 거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 상에서 평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2이었다.

##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반적인 기술통계, 상관관계, 매개 및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주요 변인 간 성차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실시하였고, 성별에 따른 거부민감성, 주의조절,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주의초점과 주의전환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는 Baron과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검증하였고, 얻어진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조절효과는 Aiken과 West(1991)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 결 과

### 성별에 따른 거부민감성, 주의조절, 사회불안 간의 관계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에서 성차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성별 집단에 따른 변인 측정치들에 대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었다. 거부민감성은 남자가 10.49(*SD*=2.79), 여자가 11.59(*SD*=2.7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를 보였다,  $t(489)=-4.44, p<.001$ .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거부에 더 민감한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주의조절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불안의 경우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에서는 성차가 없었지만, 수행불안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가 존재하였다,  $t(489)=-2.89, p<.01$ . 즉,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겪는 불안은 남녀 모두 수행불안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지만 성차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수행불안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불안을 나타냈다.

성별에 따른 거부민감성과, 주의조절, 사회불안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2에 제시하였다.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불안의 하위차원인 사회적 상호작용불안과 수행불안에서 남녀 모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남:  $r=.56, r=.50, p<.01$ ; 여:  $r=.38, r=.53, p<.01$ ). 주의초점은 남녀 모두 사회적 상호작용불안과 수행불안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남:  $r=-.31,$

표 1. 성별에 따른 변인 측정치의 차이검증

		전체( <i>n</i> =489)	남자( <i>n</i> =261)	여자( <i>n</i> =228)	<i>t</i>
거부민감성		11.00(2.80)	10.49(2.79)	11.59(2.70)	-4.44***
주의 조절 능력	주의초점	2.63(0.44)	2.64(0.44)	2.61(0.45)	0.74
	주의전환	2.61(0.43)	2.61(0.42)	2.60(0.44)	0.12
사회 불안	상호작용불안	1.68(0.68)	1.62(0.66)	1.74(0.69)	-1.95
	수행불안	1.28(0.68)	1.20(0.66)	1.37(0.70)	-2.89**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2. 성별에 따른 측정변수 간의 상관계수 (남 *n*=261 / 여 *n*=228)

여	남	거부민감성	주의초점	주의전환	상호작용 불안	수행불안
		거부민감성	1	-.27**	-.31**	.56**
주의초점	-.29**	1	.57**	-.31**	-.41**	
주의전환	-.26**	.43**	1	-.41**	-.37**	
상호작용불안	.38**	-.38**	-.38**	1	.70**	
수행불안	.53**	-.36**	-.39**	.70**	1	

\*  $p < .05$ , \*\*  $p < .01$ .

$r=-.41, p<.01$ ; 여:  $r=-.38, r=-.36, p<.01$ ), 주의전환 능력 또한 남녀 모두 사회적 상호작용불안과 수행불안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남:  $r=-.41, r=-.37, p<.01$ ; 여:  $r=-.38, r=-.39, p<.01$ ).

###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주의초점의 매개효과

남녀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에 대한 주의초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성에서 거부민감성이 사회불안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상호작용불안과 수행불안에 영향을 미칠 때 주의초점의 매개효과를 각각 검증해 보았다(표3). 먼저 거부민감성과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의 관계에서의 주의초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독립변인인 거부민감성이 매개변인인 주의초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beta=-.27, p<.001$ ), 거부민감성이 종속변인인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 $\beta=.56, p<.01$ ). 거부민감성이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두 번째 단계( $\beta=.56, p<.001$ )

보다 세 번째 단계( $\beta=.51, p<.001$ )에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주의초점을 낮추고, 낮아진 주의초점이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을 높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자대학생에서 주의초점은 거부민감성과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정확한 매개효과를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z=-4.32, p<.001$ ).

거부민감성과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주의초점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독립변인인 거부민감성이 매개변인인 주의초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beta=-.27, p<.001$ ), 거부민감성이 종속변인인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 $\beta=.50, p<.001$ ). 거부민감성이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두 번째 단계( $\beta=.50, p<.001$ )보다 세 번째 단계( $\beta=.42, p<.001$ )에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주의초점을 낮추고, 낮아진 주의초점이 수행불안을 높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자대학생에서 주의초점은 거부민감성과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정확한 매개효과를 통계적 유

표 3. 남성의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주의초점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R^2$	$\beta$	$t$
1	거부민감성	→	주의초점	.08	-.27***	-4.57***
2	거부민감성	→	상호작용불안	.31	.56***	10.85***
3	거부민감성 주의초점	→	상호작용불안	.34	.51*** -.17**	9.76*** -3.16**
1	거부민감성	→	주의초점	.08	-.27***	-4.57***
2	거부민감성	→	수행불안	.25	.50***	9.25***
3	거부민감성 주의초점	→	수행불안	.33	.42*** -.30***	7.88*** -5.58***

\*  $p < .05$ , \*\*  $p < .01$ , \*\*\*  $p < .001$ .



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z=-4.13, p<.001$ ).

여성에서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거부민감성이 사회불안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상호작용불안과 수행불안에 영향을 미칠 때, 주의초점의 매개효과를 각각 검증해 보았다(표4). 먼저 거부민감성과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의 관계에서의 주의초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독립변인인 거부민감성이 매개변인인 주의초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beta=-.29, p<.001$ ), 거부민감성이 종속변인인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 $\beta=.38, p<.001$ ). 거부민감성이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두 번째 단계( $\beta=.38, p<.001$ )보다 세번째 단계( $\beta=.30, p<.001$ )에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주의초점을 낮추고, 낮아진 주의초점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높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자대학생에서 주의초점은 거부민감성과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정확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부분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z=-3.16, p<.01$ ).

거부민감성과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주의초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독립변인인 거부민감성이 매개변인인 주의초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beta=-.29, p<.001$ ), 거부민감성이 종속변인인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 $\beta=.53, p<.001$ ). 거부민감성이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두 번째 단계( $\beta=.53, p<.001$ )보다 세 번째 단계( $\beta=.46, p<.001$ )에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주의초점을 낮추고, 낮아진 주의초점이 수행불안을 높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자대학생에서 주의초점은 거부민감성과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정확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부분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z=-3.77, p<.001$ ).

성별을 통제한 후에도 이 같은 주의초점의 매개효과가 검증되는지 확인해 보았다. 성별을 통제한 후에도 주의초점은 거부민감성과 사회적 사회불안 [상호작용불안(그림1), 수행불안(그림2)]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표5).

표 4. 여성의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주의초점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R^2$	$\beta$	$t$
1	거부민감성	→	주의초점	.08	-.29***	-4.50***
2	거부민감성	→	상호작용불안	.14	.38***	6.16***
3	거부민감성 주의초점	→	상호작용불안	.22	.30*** -.29***	4.80*** -4.79***
1	거부민감성	→	주의초점	.08	-.29***	-4.50***
2	거부민감성	→	수행불안	.28	.53***	9.29***
3	거부민감성 주의초점	→	수행불안	.33	.46*** -.23***	8.04*** -4.02***

\*  $p < .05$ , \*\*  $p < .01$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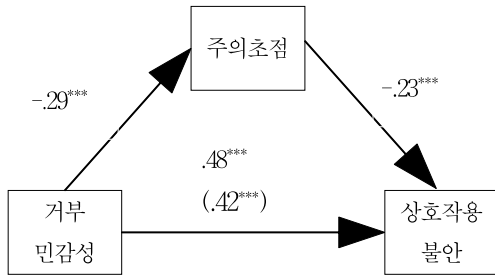


그림1. 거부민감성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간의 관계에서 주의초점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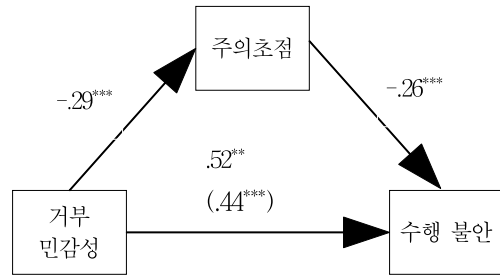


그림2. 거부민감성과 수행불안 간의 관계에서 주의초점의 매개효과

표 5.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주의초점의 매개효과(성별 통제)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R <sup>2</sup>	β	t
1	거부민감성	→ 주의초점	.08	-.29***	-6.42***
2	거부민감성	→ 상호작용불안	.23	.48***	11.87***
3	거부민감성 주의초점	→ 상호작용불안	.27	.42*** -.23**	10.18*** -5.61**
1	거부민감성	→ 주의초점	.08	-.29***	-6.42***
2	거부민감성	→ 수행불안	.27	.52***	13.10***
3	거부민감성 주의초점	→ 수행불안	.34	.44*** -.26***	11.25*** -6.81***

\* p < .05, \*\* p < .01, \*\*\* p < .001.

추가적으로,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주의초점의 조절효과를 확인해본 결과, 주의초점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주의전환의 조절효과 및 매개 효과

남녀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에 대한 주의전환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남녀 대학생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불안 모두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었을 때 상호작용항의 beta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앞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주의전환은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주의전환의 매개효과를 확인해 보았다.

남성에서 거부민감성이 사회불안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상호작용불안과 수행불안에 영향을 미칠 때, 주의전환의 매개효과를 각각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남자대학생에서 주의전환은 거부민감성

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주의전환은 거부민감성과 수행불안의 관계에서도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표6).

여성에서 거부민감성이 사회불안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상호작용불안과 수행불안에 영향을 미칠 때, 주의전환의 매개효과를 각각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여자대학생에서 주의전환은 거부민감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표7). 아울러, 주의전환은

거부민감성과 수행불안의 관계에서도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남녀 모두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주의전환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성별을 통제된 후에도 이 같은 주의전환의 매개효과가 검증되는지 확인해 보았다. 성별을 통제된 후에도 주의전환은 거부민감성과 사회적 사회불안[상호작용불안(그림3), 수행불안(그림4)]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표8).

표 6 남성의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주의전환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R <sup>2</sup>	β	t
1	거부민감성	→ 주의전환	.10	-.31***	-5.24***
2	거부민감성	→ 상호작용불안	.31	.56***	10.85***
3	거부민감성 주의전환	→ 상호작용불안	.37	.48***	9.24***
1	거부민감성	→ 주의전환	.10	-.31***	-5.24***
2	거부민감성	→ 수행불안	.25	.50***	9.25***
3	거부민감성 주의전환	→ 수행불안	.30	.42***	7.74***
				-.24***	-4.41***

\* p < .05, \*\* p < .01, \*\*\* p < .001.

표 7. 여성의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주의전환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R <sup>2</sup>	β	t
1	거부민감성	→ 주의전환	.07	-.26***	-3.99***
2	거부민감성	→ 상호작용불안	.14	.38***	6.16***
3	거부민감성 주의전환	→ 상호작용불안	.23	.30***	4.97***
1	거부민감성	→ 주의전환	.07	-.26***	-3.99***
2	거부민감성	→ 수행불안	.28	.53***	9.29***
3	거부민감성 주의전환	→ 수행불안	.35	.46***	8.17***
				-.28***	-4.96***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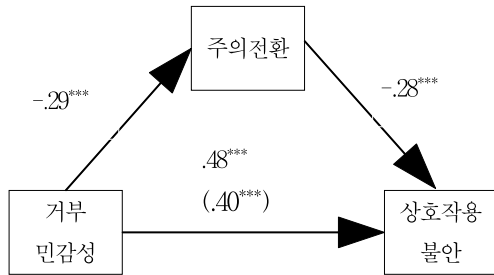


그림3. 거부민감성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간의 관계에서 주의전환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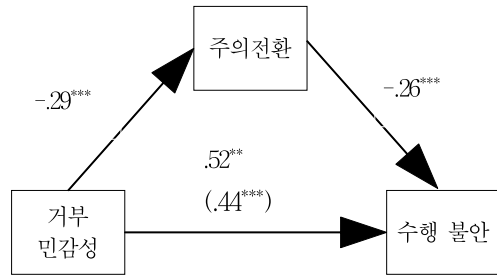


그림4. 거부민감성과 수행불안 간의 관계에서 주의전환의 매개효과

표 8.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주의전환의 매개효과(성별 통제)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R <sup>2</sup>	β	t
1	거부민감성	→ 주의전환	.08	-.29***	-6.54***
2	거부민감성	→ 상호작용불안	.23	.48***	11.87***
3	거부민감성 주의전환	→ 상호작용불안	.30	.40***	9.92***
				-.28***	-7.16***
1	거부민감성	→ 주의전환	.08	-.29***	-6.54***
2	거부민감성	→ 수행불안	.27	.52***	13.10***
3	거부민감성 주의전환	→ 수행불안	.33	.44***	11.21***
				-.26***	-6.63***

\* p < .05, \*\* p < .01, \*\*\* p < .001.

## 논 의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이 둘을 매개 및 중재하는 개인차 변인인 주의초점과 주의전환에 초점을 맞추었다.

거부민감성, 주의초점과 주의전환, 사회불안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에서 성차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인 수행불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차가 발견되었고, 여자가 남자보

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거부민감성에서 성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박명주, 2012; McLachlan et al., 2010)를 반박하는 결과이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남성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 경쟁 지향적이고, 여성은 양육 지향적이었다(Rob Brooks, 2015/2012). 따라서 남성들은 선천적으로 지배적 성향을 띠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에 영향을 덜 받는 반면, 여성은 친밀하고 반응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에 더욱 민감하여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불안에서의 성차에서 흥미로운 점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에서는 유의미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수행불안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불안수준을 보고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발달 과정 중에 다른 성역할 기대로 수행불안 태도에 다른 피드백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겨났을 것으로 보인다(주은선, 장세은, 2012). 현대사회에서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이 감소되었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발달과정에서는 여자가 수행상황에서 불안을 보고했을 때 좀 더 허용적인 피드백을 받은 반면, 남자는 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것이라 사료된다.

성별을 구분하여 상관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방향이나 계수에 있어서 남녀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면,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불안과 수행불안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불안만 높은 것이 아니라 타인이 관찰하는 특정 상황에서의 불안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거부민감성이라는 변인은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지간에 사회불안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의조절척도의 하위요인인 주의초점과 주의전환은 거부민감성,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수행불안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주의초점과 주의전환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사회적 위협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으로 인해 주의조절능력에 결함이 있다는 선행연구(Berenson et al., 2009)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주의초점과 주의전환이 낮을수록 사회불안의 하위요인들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사회불안자들이 위협단

서에 주의편향을 할수록 불안이 상승함을 밝혔던 기존연구(Rapee & Heimberg, 1997)와 맥락을 함께 함을 알 수 있었다.

남녀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주의초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녀 대학생 모두에서 주의초점이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수행불안에 유의미한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개인의 적응을 돕는 목표자극에 주의를 초점 시키고자 하지만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거부로 인식하는 지속적 경계태세 때문에 주의가 분산되어 사회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나 흥미로운 점은 남녀 모두에서 주의초점의 유의미한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지만 그 설명력에서는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남성의 경우 거부민감성이 주의초점을 매개로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을 34%설명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22%를 설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거부민감성이 높더라도 더 관계 지향적이며, 사회적 망이 활성화되어 있는 여성이 남성보다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졌기 때문일 수 있다. 여성은 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기회를 갖게 되면서 타인에게 거부당할 것이라는 비합리적 신념에 반대되는 근거들과 마주하게 된다. 이처럼 비합리적 신념을 반박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서 여성이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에서 더 낮은 예측력을 나타낸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거부민감성과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의 관계를 예측할 때, 사회적 관계 맺기의 기회나 성별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여성의 거부민감성은 오히려 사회적 상호작용불안보다 수행불안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융통적으로 자신의 목표 및 행동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반면, 수행 상황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보다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남성보다 불안이 높은 여성들은 타인이 관찰하는 상황에서 어떤 피드백 없이 자신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상황에 더 큰 불안감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남녀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주의전환의 조절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주의전환은 남녀 대학생 모두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주의전환이 불안이나 우울을 감소시키는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선행연구(Derryberry & Reed, 2002, Ólafsson et al., 2011)와는 다른 결과이다. 또한 거부민감성과 경계선 성격장애간의 관계에서 주의조절척도가 조절효과를 나타낸 선행연구에 비추어 봤을 때(민지영, 2012)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본 연구는 거부민감성 및 사회불안이라는 대인관계적 측면의 불안을 다룬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안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 불안한 자극으로부터 주의를 전환함으로써 불안을 낮출 수 있지만, 대인관계 상황은 단기적 관계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아 단지 그 상황에서 주의를 전환할 수 있다고 해서 사회불안이 유의미하게 낮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거부민감성이라는 동일한 취약성을 가져도 주의조절력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경우에는 조절효

과를, 반면에 사회불안의 경우에는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낸 것은 새로운 발견이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경우, 거부민감성과 주의조절력의 수준에 따라 부정적 정서나 경계선 성향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민지영, 2012). 본 연구에서 사회불안의 경우, 거부민감성과 주의조절력이 상호작용해서 사회불안을 낮추거나 높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주의초점 또는 주의전환능력의 결함을 거쳐 사회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계선 성격장애와 사회불안 간의 차이는 주의전환의 작동기제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으로부터 주의를 전환함으로써 분명 심리적 안정을 돕는 적응적인 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불안의 경우, 주의전환은 단기적으로 볼 땐 불안을 감소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불안감을 일으키는 사회적 상황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게 되면서 학업적 · 직업적 · 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일으키는 등 역기능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처럼 적응/부작용 측면이 혼합되어 있기에, 주의전환 자체가 유의하게 사회불안을 낮추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들은 주의전환이 불안을 낮춘다는 사실을 밝혀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즉, 사회불안에서의 주의전환은 단순히 불안을 감소시키는 기제가 아닌 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사회불안자를 위한 주의훈련 프로그램 개발에도 좀 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의초점과 주의전환의 매개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거부민감성

과 사회불안(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주의초점과 주의전환의 부분매개효과가 각각 유의하였다. 이는 주의초점과 주의전환이라는 변인이 성별의 효과를 제거한 후에도 사회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사회불안의 수준이 성별에 따라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의과정에서의 치료적 개입은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거부민감성 연구들이 경계선 성격장애와 함께 많이 다뤘다면,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사회불안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또한 거부민감성이 대인간 상호작용에서 불안을 측정하는 대인불안에 초점을 맞춰 그동안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을 사회적 상호작용상황에서의 불안과 수행상황에서의 불안을 나누어 거부민감성이라는 취약성이 어떤 상황의 불안에 더 영향을 끼치는지를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성별에 따른 다른 차이를 나타내었고, 이를 임상집단에 적용해 보면 사회불안을 진단할 때 단순히 점수의 수준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환자가 여자인지 남자인지에 따른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인 경우, 수행불안에서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불안을 나타냈으므로 치료계획에 있어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상황보다는 특정한 수행상황에서의 불안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더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과의 관계를 다룬 기존의 연구는 발달적, 정서적 측면을 확인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관점에서 이 두 변인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주의조절적도의

하위요인이 주의초점과 주의전환으로 구분하여 매개 및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두 변인 모두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특성불안과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주의조절변인이 조절효과를 나타낸다는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사회불안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사회적 불편감 호소와 사회적 상황의 회피가 주 증상인 사회불안은 불안을 일으키는 자극에 주의가 편향되기 때문에 목표자극에 주의초점화 하지 못하고, 주의전환도 잘 하지 못해 불안을 높게 된다. 하지만 주의전환을 잘 할 경우에도, 이는 불안을 낮추기보다는 사회불안의 특징인 또 다른 회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근본적으로 사회불안을 낮추는 조절변인으로서의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주의과정이 인지적 취약성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는 것과, 거부민감성이라는 동일한 취약성을 가진 경계선 성격장애와 사회불안 간에 주의과정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후속연구에서 동일한 표본에서 두 장애의 관계를 살펴볼 가능성을 제시하는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주의조절을 개인의 특성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상태적인 측면에서 주의능력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실험조작을 통해 주의조절을 상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의조절척도는 광범위한 주의조절능력을 측정하는 도구이지 사회적 상황에 국한한 평가 도구는 아니다. 따라서, 이후 사

회불안을 연구할 때는 사회적 상황이나 이와 관련된 자극을 제시하여 이들 관계를 실험을 통해 확인한다면 연구결과의 타당화를 높일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 결과 변인들 간에 상관계수와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나 그 정도가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표본의 특성일 수 있다. 즉, 거부민감성이 사회불안을 설명하는데 있어 대학생이라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영향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대학생은 연령이나 경험이 동질적인 집단이었기 때문에 효과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의 일반인들을 연구에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불안이 있는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그 관계성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이기 때문에, 거부민감성, 주의조절(주의초점, 주의전환),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향후, 종단적인 연구를 시행한다면,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좀 더 명확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인지적 취약성을 유발하는 주의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연구에서 나온 방향을 가지고 임상집단에 적용하여 사회불안을 낮출 수 있는 주의훈련 프로그램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측정하는 주의를 불수의적 과정이 아닌 수의적 과정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낮은 주의능력을 가진 개인이라도 주의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고지희 (1998). 주의조절력의 개인차와 불안수준과의 관계. *長安論叢*, 18(1), 368-383.
- 김계원 (2010). 초등학생용 주의조절 훈련프로그램 개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나영 (2009).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중재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전은 (2011). 남녀 고등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자기비난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향숙 (2001). 사회공포증 하위 유형의 기억 편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류혜라 (2014).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적 정서조절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1), 203-218.
- 민지영 (2012). 거부민감성 및 부정적 정서강도와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간의 관계: 주의조절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명주 (2012). 자기긍정확인이 거부민감성이 높은 대학생의 대인불안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심경원 (2007). 낙관성이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성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왕미란 (1995). 완벽주의, 자의식 및 우울성향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선아, 김현택, 최준식 (2007). 주의력 조절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1).
- 윤혜영 (2011) 사회불안장애의 인지행동치료 효과: 주의편향과 암묵적 자존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복동 (2000). 성인 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거부 민감성과 귀인 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승재 (2010). 사회공포증 집단이 단어 및 얼굴표정 자극에 대해서 나타내는 주의편향. 고려대학교 석사



- 학위 청구논문.
- 이정석 (2013). 거부민감성과 정서강도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진희 (2012). 사회불안 유도상황에서 사회공포증경향성 집단의 위협얼굴자극에 대한 주의편향에 미치는 자극노출시간의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정 (2007). 중학생의 행동억제 성향과 신경증 경향, 주의조절이 불안 증상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희경, 김경희, 이홍권 (2014). 거부민감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정서를 통한 과국적 사고의 매개된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97-121.
- 주은선, 장세은 (2012). 포커싱(Focusing) 활용 집단 상담이 여대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효과. 인간이해, 33(2), 139-157.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Washington, DC: APA.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ck, A. T., Emery, G., & Greenberg, R. L. (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A cognitive perspective*. New York: Basic Books.
- Berenson, K., Gyurak, A., Ayduk, O., Downey, G., Garner, M., Mogg, K., ... Pine, D. (2009). Rejection sensitivity and disruption of attention by social threat cu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6), 1064-1072.
- Derryberry, D., & Reed, M. A. (1994). Temperament and Attention: Orienting toward and away from positive and negative sign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1128-1139.
- Derryberry, D., & Reed, M. A. (2002). Anxiety-related attentional biases and their regulation by attentional control.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1, 225-236.
- Derryberry, D., & Tucker, D. (1992). Neural Mechanisms of Emo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 329-338.
- Downey, G., & Feldman, S.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70, 1327-1343.
- Downey, G., Mougios, V., Aduk, O., London, B., & Shoda, Y. (2001).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Defensive Motivational System. *Psychological Science*, 15(10), 668-673.
- Felman, S., & Downey, G.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 231-247.
- Kelly, M. M., Didie, E. R., & Phillips, K. A. (2014). Personal and appearance-based rejection sensitivity in body dysmorphic disorder. *Body Image*, 11(3), 260-265.
- Lavell, C. H., Zimmer-Gembeck, M. J., Farrell, L. J., & Webb, H. (2014). Victimization, social anxiety, and body dysmorphic concerns: Appearance-based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Body Image*, 11(4), 391-395.
- Lazarus, S. A., Southward, M. W. & Cheavens, J. S., (2016). Do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and rejection sensitivity predict social network outcomes over tim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 Leary, R. M. (1983). Social Anxiousness: The Construct and its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7: 66-75.

- Levy, S. R., Ayduk, O., & Downey, G. (2001).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people's rejection with significant others and valued social groups. *Inter personal rejection*, 251-289.
- Liebowitz, M. R. (1987). Social phobia. *Modern Problems of Pharmacopsychiatry*, 22, 141-173.
- London, B., Downey, G., Bonica, C., & Paltin, I. (2007). Social causes and consequences of rejection sensitivity in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in Adolescence*, 17, 481 - 506.
- Mathews, A. (1990). Why worry? The cognitive function of anxiety.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28, 455 - 468.
- Mattick, R. P., & Clarke, J. C.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 of social Phobia and Scrutiny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6, 243-257.
- McLachlan, J., Zimmer-Gembeck, M. J., & McGregor, L. (2010). Rejection Sensitivity in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Peer Rejection and Protective Effects of Parents and Friends. *Journal of Relationships Research*, 1(1), 31-40.
- Ólafsson, R. P., Smári, J., Guðmundsdóttir, F., Ólafsdóttir, G., Hardardóttir, H. L., & Einarsson, S. M. (2011). Self-reported attentional control with the Attentional Control Scale: Factor structure and relationship with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o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5, 777 - 782.
- Peters, J. R., Eisenlohr-Moul, T. A., & Smart, L. M. (2016). *Dispositional mindfulness and rejection sensitivity: The critical role of nonjudg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3, 125-129.
- Rapee, R. M., & Heimberg, R. G. (1997).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anxiety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 741-756.
- Rob Brook, (2015). 매일 매일의 진화생물학.(최재천 역). 서울: 바다출판사. (원전은 2012년에 출판).
- Rosenbach, C., & Renneberg, B. (201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d rejection and borderline characteristic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9, 176-181
- Rothbart, M. K., Derryberry, D., & Posner, M. I. (1994). A psychobiological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temperament. In J. E. Bates, & T. D. Wachs (Eds), *Temperament: individual differences at the interface of biology and behavior*(pp.83-11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Wells, A., & Matthews, G. (1994). *Attention and emotion: A clinical perspective*. Hillsdale, NJ: Erlbaum.
- Williams, J. M. G., Mathews, A., & MacLeod, C. (1996). The emotional Stroop task and psychopathology. *Psychological Bulletin*, 120, 3 - 24.

원고접수일: 2016년 3월 10일

논문심사일: 2016년 4월 6일

게재결정일: 2016년 8월 12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6. Vol. 21, No. 3, 641 - 660

---

# The Relation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al Anxiety in Male and Female Korean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Attentional Focus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Attentional Shifting

Yeong-A Lee

Department of Mental Health,  
Chuncheon National Hospital

In-Hyae Yi

Department of Psych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Rejection sensitivity is related with a variety of psychological issues.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attentional focus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attentional shift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al anxiety among college students. For these purposes, 489 college students (261 males and 228 females) completed the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RSQ), Attentional Control Questionnaire(ACQ),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SIAS), Social Phobia Scale(SPS). Study results indicated that rejection sensitivity and performance anxiety which is a subtype of social anxiety were higher in females than males. However, relation direction and coefficient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Both genders showed a higher social anxiety scores of if they had a higher rejection sensitivity score. The subtypes of attentional control - attentional focusing and attentional shifting - showe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al anxiety. The mediating factors of attentional focus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al anxiety in college students of both genders were investigated. As a result, attentional focusing was shown to have significant, partial mediating effects in social anxiety in both genders. The moderating factors of attentional shift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al anxiety in college students of both genders were investigated; however the moderating effects of attentional shifting between the two variables was not confirmed in this study. Rather, mediating effects of attentional shifting were seen in college students of both genders. These findings highlight attention processes that causes social anxiety.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variables that mediate or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al anxiety. The findings increase the current understanding of attention processes that causes social anxiety. This study also provides various ways for decreasing the social anxiety. Last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rther planned studies are discussed.

*Keywords: Rejection Sensitivity, Social Interaction Anxiety, Performance Anxiety, Attentional Focusing, Attentional Shifting*